우도환 "대역 없는 액션, 살아있음을 느꼈죠"

'사냥개들2'서 복싱 챔피언 김건우 역할
액션 '눈길'… "마동석이 '잘한다' 칭찬"

배우 우도환은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 시즌2'에서 무기 하나 없는 맨주먹 액션으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가 대적하는 상대도 다양하다. 극 중 챔피언전 상대인 실제 격투기 선수 아지벡부터 빌런(악인)으로 등장한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까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드는 상대들에 맞서 피땀 어린 '불주먹'을 선보인다.

팬츠 하나만 입고 찍어야 하는 복싱 경기의 경우 대역을 쓰기 어렵다. 근육이 만드는 몸의 질감이나 주먹을 뻗고 거두는 폼까지 대역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도환은 가진 것이라곤 주먹 하나밖에 없는 맨몸으로 액션을 소화했다. 맨손으로 총과 칼에 대적하고, 높은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고 매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눈물 어린 싸움을 응원하게 된다.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배우 우도환은 '사냥개들2'를 촬영하며 느낀 액션의 쾌감을 이야기했다.

그는 "'사냥개들2'를 찍기 전까지 대역을 안 쓰는 톰 크루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며 "직접 액션을 하니 살아있음을 느낀다. 시즌3이 나오면 톰 크루즈처럼 비행기에 매달리는 것도 하겠다고 했다"고 웃음 지었다.

모든 액션을 직접 해내야 하는 탓에 근육통을 달고 살았다는 그는 "허벅지 근육이 남아나지 않았다. 매일 근육이완제를 먹었다. 맞는 신이 많다 보니 나중에는 목이 안 돌아가기도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사냥개들'은 불법에 맞서는 두 청춘 복서 김건우와 홍우진(이상이 분)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물이다. 둘은 2023년 공개된 시즌1에서 불법 사채 조직과 싸웠고, 3년 만에 공개된 시즌2에선 글로벌 불법 복싱 리그에 대적한다.


'사냥개들2' 배우 우도환. 넷플릭스 제공

이달 3일 공개된 시즌2는 사흘 만에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이 집계한 넷플릭스 톱 10에서 비영어 쇼 2위를 기록하며 국내외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즌2의 인기 요인으로는 쾌감을 극대화한 액션이 꼽힌다. 극 중 우도환은 복싱세계 챔피언까지 오른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시즌1보다 체중 5kg를 증량하고, 더 묵직하고 힘 있는 액션을 보여줬다.

타격감이 느껴지는 '사냥개들2'의 맨주먹 액션은 배우 마동석의 '범죄도시' 시리즈와 비교되기도 한다.

우도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액션 작품으로 같이 선두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며 "'범죄도시'와 '사냥개들'의 세계관이 하나가 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많이 있다. 마동석 선배님을 뵌 적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셨다"고 말했다.

우도환과 이상이의 더 끈끈해진 팀워크도 '사냥개들2'의 관전 요소다. 이상이는 극 중에서 가족 이상의 사이가 된 김건우와 홍우진의 관계를 '브로멜로'(브로맨스+멜로)라고 표현했다. 연합뉴스


걸그룹 엔믹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후.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엔믹스, 美 메이저리그서 공연·시구

시포 이정후와 호흡

걸그룹 엔믹스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경기에서 프리게임(사전) 공연과 시구를 펼쳤다.

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팀을 대표해 멤버 설윤이 시구자로 마운드에 섰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외야수 이정후가 시포를 맡았다. 엔믹스는 또한 이날 히트곡 '블루 밸런타인'(Blue Valentine) 공연도 펼쳐 홈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응원했다.

이들은 첫 번째 월드투어 '에피소드 1: 제로 프론티어'(EPISODE 1: ZERO FRONTIER)의 북미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태국 방콕, 싱가포르, 대만 가오슝, 홍콩, 일본 도쿄 등지에서 아시아 투어를 연다. 연합뉴스

연예계 소식

고수·서지혜 스릴러 '리버스' 17일 공개


'리버스' 포스터. 웨이브 제공

웨이브는 오는 17일 배우 고수, 서지혜가 주연을 맡은 오리지널 시리즈 '리버스'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리버스'는 재벌가 별장 폭발 사고에 휘말려 기억을 잃은 묘진(서지혜)이 의문스러운 약혼자 준호(고수)의 비밀과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기억을 되찾아가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2022년 이선빈, 이준혁, 김다솜, 임원희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동명의 오디오무비를 바탕으로, 기억상실이란 핵심 소재를 두고 8부작으로 새로운 구성했다. 배우 김재경, 임원희, 이현경, 최무성, 심형탁도 출연한다.

이승철이 이끄는 오디션 '더 스카웃' 내달 방송

ENA는 가수 이승철이 마스터로 출연하는 음악 오디션 '더 스카웃'을 다음 달 방송한다고 9일 밝혔다.

'더 스카웃'은 가요계 최고 전문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원석을 직접 발굴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신인 발굴에 나선 이승철은 그간 '슈퍼스타K' 시리즈와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 '캡틴' 등 다양한 오디션에서 심사를 맡았다.


가수 이승철. LSC 제공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AI 챗봇 서비스 운영

지식재산권(IP)·인공지능(AI) 엔터테인먼트 기업 모다이브는 자사 서비스 모잇을 통해 10일부터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속 주인공들과 직접 소통하는 AI 챗봇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드라마 주인공인 성희주(아이유 분), 이안대군(변우석) 챗봇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평민 신분이라 짜증스러운 재벌 성희주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비운의 왕자 이안대군의 드라마 속 설정을 따라 대화하거나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연합뉴스

'콩콩' 새 시리즈… 김우빈·도경수·이광수 출연

배우 김우빈과 도경수, 이광수가 새로운 '콩콩' 시리즈에 출연한다.

9일 방송계에 따르면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은 김우빈과 도경수, 이광수가 출연하는 '콩콩' 새 시리즈를 제작한다.

세 사람은 2023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콩팥팥), 2024년 '콩 심은 데 콩 나고 밥 먹으면 밥심 난다'(콩콩밥밥), 2025년 '콩 심은 데 콩 나서 웃음팡 행복팡 해외탐방'(콩콩팡팡)까지 세 번의 시리즈에 출연했다.

이달 중 촬영을 시작하며 편성 시기는 미정이다. 연합뉴스

이선희, 4년 만에 신곡
작곡가 박근태와 협업

가수 이선희가 오는 15일 신곡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를 발매한다고 초록뱀엔터테인먼트가 9일 밝혔다.

이선희가 신곡을 내는 건 지난 2022년 YB와 함께한 듀엣곡 '지지 않겠다는 약속' 이후 4년 만이다.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는 켜켜이 쌓인 시간 속에서 완성된 감정의 깊이와 삶의 통찰을 섬세하게 녹여낸 노래다.

이 곡은 이선희의 대표곡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만든 작곡가 박근태와 협업으로 완성됐다. 그의 감성과 맑은 음색으로 사랑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담아냈다. 연합뉴스


가수 이선희. 초록뱀엔터테인먼트 제공

